제3제국(Das Dritte Reich)의 정책이념과 체육교육*

- Nazis의 체육정책 -

주동진**

〈차 례〉

1. 서론
2. 제3제국의 등장
3. 제3제국의 정책이념
4. 제3제국의 체육교육
5. 결론

【국문초록】

독일의 제3제국은 나치스의 등장과 같이하며, 이는 주로 히틀러의 신념과 사상이다. 히틀러는 독일민족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자 전쟁 필수를 역설하였고, 제3제국의 이념을 확고히 하고자 국민들에게 이념무장교육을 하였다. 여기에는 제국의 영토 방어와 확장을 위한 국방정책,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교육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을 위한 노동정책 등이 강하게 작용하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9-551-G00026).

** 동국대학교 대학원 /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다. 제3제국의 정책이념은 인종주의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며 학교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 교육의 큰 테두리는 전체주의적 '공동체 교육'이며, 이것은 제3제국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책임'이며 제국의 '평등한 권리로써의 의무교육'이다. 체육정책은 신체활동을 통한 이상적인 인간, 즉 제국의 수호자인 군인양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나치의 학교교육은 주로 신체교육을 중시한 체육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학교교육제도로는 노동을 강조하고 신체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독일 노동전선과 전원학교 그리고 군사체육조직 등이 있었다. 그들의 교육과정 최종단계는 군대이어서 학교체육은 군사교육의 준비단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나치의 여성교육은 인종 위생학을 바탕으로 4K라는 여성교육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임신과 출산에 두었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3제국의 교육목표는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 즉 지도자와 국가에 절대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즉 전 국민을 12년 동안 나치 체제 안에 묶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단계별 교육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3제국의 교육은 신체우선, 정신이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탐구에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최종 교육과정을 군대에 두었고 군역의 의무를 마쳐야 진정한 독일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평등한 국민의식과 국가 방위 그리고 국가발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짊어지게 하였다. 제3제국은 국가운영과 교육정책에 있어서 신체형성 등의 체육 분야를 가장 잘 활용하였고, 가장 많은 시간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체육교육을 강력하게 운영한 국가주의 체육정책과 교육의 전형적인 국가가 되었다.

주제어: 제3제국, 나치정부, 체육, 체육정책, 히틀러리즘

1. 서론

독일 제3제국(Das Dritte Reich)은 Nazis(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의 국가였으며, 나치의 정책이념은 나치당의 총수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신념과 사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히틀러의 생각(Hitlerlism)이 곧 Nazism이며 나치즘은 곧 제3제국의 이념인 것이다. 제3제국의 기본이념은 racism(人種主義)이며 이를 위해 nationalism(國家主義)이 필요하고, 국가는 민족의 Darwinism(適者生存)의 실현방법이었다.

3제국은 국민의 '삶의 터전(영토)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필수'를 역설하였고 그 제국건설의 주인은 국민이며 곧 제국의 전사였다. 따라서 제국건설에는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이념이 필요하였고 나치는 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생애교육의 틀을 설계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한 것이다.

1920년~1930년대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정치적 문제와 함께 세계대공황이라는 고통스런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3제국의 등장은 당시 독일인들에게 '축복과 같은 의미'[1]를 주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존심과 희망, 즉 彼岸의 세계, 그 환상으로써의 3제국의 비전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또 패전으로 그들의 꿈은 사라졌고 패전은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처음부터 3제국은 삶의 터전 확보라는 근본이념에 의해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라이브한 정책 중 교육, 특히 체육 분야의 몇 가지 모델은 고려해 볼 대상이어서

---

1) 제3제국의 총통인 "히틀러는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재를 부정한다. 이를 위해 미래와 과거를 찬미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즉 증명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를 제시하고 대중에게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전윤수 · 주동진, 2007: 26)."

무거운 짐이 된다.

역사평가에는 냉정해야 한다. 한쪽 모퉁이에 처박아 놓고 무조건 3제국은 나쁘다고 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中世의 마녀사냥(종교재판)과 다름이 아니다. 3제국에 대한 연구는 존재해야 한다. 어디에나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체육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가치론적 샘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패한 국가의 망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 즉 최소한의 他山之石 效果라도 찾으려는 노력이다.[2] 그러므로 이 연구는 독일 제3제국의 책임(전쟁범죄)을 논하려 한 것이 아니다.[3]

전쟁을 일으켜 세계평화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인명을 살해하였으며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에 혼돈을 惹起한 3제국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그러나 당시 독일국민들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3제국과 히틀러를 추종하며 동조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특히 그들이 강력하게 실행한 체육(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의문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

현재까지 체육학 분야에서 독일 제3제국에 대한 집중적인 담론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스는 체육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인 3제국의 체육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를 저지른 3제국의 단점보다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다. 제3제국이 일으킨 '전쟁'

---

2) 여기에는 건강을 위한 학교체육, 노동자를 위한 여가문화, 국민건강증서, 전원(농촌)학교 등이 있다. 그리고 평등한 체육활동, 즉 "신분에 따른 체육활동은 사라졌다(전윤수 · 주동진, 2007: 33)."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3) "현대사에서 1945년은 국제적인 심판(1945.11.14 - 1946.10.1)이 있었던 특별한 한 해였다.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의 뉘른베르크(Nürnberg)시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戰犯에 대한 재판이 그것이다(임식 주동진, 2010: 184)." 그리고 이 전범재판을 통해 "그 동안 비밀리에 자행되었고, 오직 소문으로만 떠돌던 나치정권의 만행, 무엇보다도 유대인 학살 등이 공식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梁千秀, 2006: 168)."

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한다면 이 연구는 논할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편견이 없는 학문적 입장에서 체육 이념과 정책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3제국의 過誤史를 숨기는 것 보다 끄집어내어 저울질 하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 효과를 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 연구자는 독일 제3제국(범죄집단,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밝히고자 하는 심정은 寓話 속,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감한 쥐'의 苦惱와 같다. 제3제국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관련하여 제2, 제3의 새로운 시각과 판단도 필요하며 또 이에 대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類의 연구 역시 미래 인류를 위한 지침이며 또한 필요한 학문적 담론은 분명하다.

2. 제3제국의 등장

1) 시대적 배경

독일 제3제국, 즉 나치당의 출현에 대하여 리터(Gehard Ritter)는 "汎 유럽적 현상(朴在穆, 1988: 189)"으로 보았는데, 이는 3제국을 독일이라는 한 국가의 시대적 배경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국내외(독일과 유럽전체)의 사회·경제·정치·군사의 측면을 다양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사회·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베르사유 조약(1919년)'은 독일을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국로 낙인 시켰다. … 이로 인하여 독일 국민은 좌절과 절망으로 사기가 저하되었고, 하류층에게는 경제적 빈곤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1923년 인플레이션은 중산층에게 마저 치명적이었다(임식·주동진, 2010: 186)."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세계대공황(1929년)은 독일에도 600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나치정권의 우선과제는 “공황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실업의 해소와 노동력의 재배치가 정책의 초점이 되었다(나혜심, 1991: 125-126).”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존하고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파싸움으로 정치상황이 혼란하였다. 이때 히틀러와 나치는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독일인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하였다. 즉 개인(귀족주의)보다 민족과 국민(독일민족주의)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나치 宣傳相 괴벨스(Hoseph Goebbels)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사회주의자(Remak Joachim, 1969: 39)”라고 결론짓고 국가사회주의(나치)적 혁명을 요구하였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 나치는 軍을 이용하였다.[4] 히틀러는 1924년 3월 뮌헨의 법정에서 (베르사이유 조약의 결과) 10만 명으로 축소되어 군의 힘과 승진이 좌절된 젊은 장교들에게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비난(조국을 적에게 판 장본인이라고 하는 등)을 하여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 군부에서 히틀러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장군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나치 군사정권이 탄생된 것이다.

한편, 간과해서 안 되는 또 하나의 배경요인이 있다. 바로 독일 국민들의 민족적 정서이다. 朴在穆(1988: 190-191)은 이에 대하여 3제국의 나치이념, 즉 ‘히틀러주의는 독일역사의 뿌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독일 국민감정의 분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反猶太主義(인종주의)였다. 이를 다른 각도

---

4) 나치는 독일 중산층의 자경조직(준군사 조직)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집권 후에는 SA를 이용하여 정적제거 및 독일의 나치化에 활용하였다. 유럽의 중산층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그들 스스로 반사회주의적이고 반혁명적인 성격을 가진 자경조직(Selbstschutzorganisation)들을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럽 각국에서 진행되었던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의 시대 조류 같은 것이었다(金俸辰, 1995: 1).”

로 보면 유태인에 대한 독일 국민의 敗北意識이라 볼 수 있다.[5] 히틀러는 이러한 民衆心理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독일 국민들은 첫째, 임시방편이지만 경제공황을 해결하고 둘째, 강력한 군사정권으로 정치적 혼란을 안정시켰으며 또한 셋째, 강력한 민족우월주의는 민족 자존심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나치의 물거품 같은 계략에도 호응하였던 것이다. 결국 복합적인 시대배경에 의해 독일국민들은 나치를 받아들이고 또 동조하였다. 당시 국내외적인 총체적 난국에서 나치의 정책에 대하여 半信半疑하였지만 달리 묘안이 없었기에 독일 국민들은 3제국이 砂上樓閣, 즉 '꿈의 궁전'인 줄 저어하면서도 나치의 정책에 매달리고 이끌려 간 것이다.

2) 제3제국(히틀러와 나치)의 등장

히틀러는 나치당의 黨首이자 總統(Führer)이었다. 또 국방부의 권한(국방부장관; 國防相)까지 가져 독일 역사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제3제국은 나치정권이며 나치는 히틀러의 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제국의 정책은 히틀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

5) 19세기 유럽에 유행했던 인종주의(反猶太主義)는 나치정권의 핵심이념으로 사실은 독일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사회사상가였던 고노비(Joseph-Arthur Gobineau, comte de : 1816-1882)가 「인종의 불평등에 관한 에세이」(Essai 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에서 이미 이 이론을 제시하였고 히틀러는 이것을 이용한 것이다. 인종주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독일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더 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유정준, 2005: 10)."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에서 '독일인의 피와 혼인 보호법(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이라는 인종법(Rassegesetze)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유태인들이 죽어갔다. 그런데 "히틀러 전문가 중 한 사람인 독일의 페르시 슈람(Percy Ernst Schramm)조차도 히틀러가 왜 인종주의를 선택하였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고 하였다(Percy Ernst Schramm, 1965: 51-52, 119. ; 朴立秘, 1985)." 이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종주의는 독일 국민의 민족감정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히틀러의 정치적 전술이라고 본다.

無所不爲의 권력자 히틀러의 출현배경에는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임(사회·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세계공황) 그리고 독일 국민의 민족정서도 히틀러의 출현배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히틀러의 등장에 대하여 요하네스 할러(Johannes Haller: 나치출신의 보수적 역사가)는 "그는 민중으로부터 나왔고, … 그의 부상은 민족적 사고의 승리(Haller Johannes, 1940: 403; 이진일, 2005: 268)." 라고 찬양하였다. 그리고 쉬라흐(Baluar von Schirach)는 "그는 독일인민이 원했던 사람이었으며, … 우리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主君으로 우리가 만든 사람이었다(William Carr, 1978)."[6]고 하였다. 히틀러연구가들이 대부분 긍정(일치)하는 히틀러의 장점은 "언어구사, 즉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효과를 극대화(전윤수·주동진, 2007: 27)"하는 '웅변의 달인'이었다. 즉 히틀러는 웅변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眩惑시킨 것이다.

뉴른베르크(Nürnberg)의 감방에 수감되었던 프랑크(Habs Frank)는 "히틀러는 惡魔였으며, 그는 우리들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였다(G. M. Gilbert, 1961: 257)"고 하면서 독일(나치와 동조한 국민모두)이 저지른 국제범죄(전쟁)를 히틀러라는 개인 인물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하였다. 독일이 짊어져야 할 총체적 책임을 그들의 선출한 대통령에게 모두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렇다고 그 범죄는 축소되지 않는다.

나치시대, 그 당시 진정한 독일의 모습은 히틀러의 꿈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히틀러는 독일의 희망이자 독일 국민들이 바라던 일을 해 줄 수 있었던 지도자로 推仰받았다. 그리고 제3제국의 범죄행위는 당시 독일 전체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제3제국 건설은 국민들이 加擔하였고 혹은 同調 혹은 默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6) 쉬라흐(Baluar von Schirach)는 히틀러 청소년단(Hitlerjugend)의 지도자이다. 이 내용은 朴在穆(1988: 7)의 것을 재인용한 것임.

3. 제3제국의 정책이념

1) 정책이념의 출발 : 히틀러리즘

(1) 제3제국 총통(히틀러)의 기본 이념

독일 나치시대 12년(1933년-1945년) 동안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히틀러, 그의 정치활동 25년을 하나의 사상으로 정리하면 히틀러리즘(Hitlerism)이다.[7] 이것은 당시 나치 국가와 국민의 사유체계였다.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arwinism(適者生存)이다. 히틀러는 다위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적자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 nationalism(國家主義)이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나의투쟁; Mein Kampf)에서 "민족의 유지와 이념적 능력을 한층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써의 국가를 생각할 수 있다(Adolf Hittler, 1943)."고 하였다. 셋째, racism(人種主義)이다. 히틀러는 猶太人을 아리아 인종(독일인)과 가장 적대적 인종으로 간주하고 유태인 제거정책을 펼쳤다.

(2) 히틀러의 국가정책 이념

히틀러의 주요한 국가정책이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시민권'이론으로 독일인의 자격 조건을 '독일의 血을 가진 자(Adlof Hittler, 1943: 389)'로 제한했다. 둘째, 독일 인종보호와 발전을 위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론을 주장했다. 셋째,

---

7) "국가사회주의는 히틀러주의(Hitlerism)라고 부르며 히틀러라는 한 개인의 의지가 투영되어 나치즘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히틀러와 함께 나치즘은 존재하며,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따라서 히틀러를 빼놓고는 나치즘(제3제국)은 이해할 수 없다(Eberhard Jaecke, 1981: 19)."

‘거대문화주의’이론[8]을 강조하면서 국가소유의 웅장하고 거대한 문화시설 건설을 주장했다. 넷째, ‘지도자의 원리로써 책임주의’이론[9]이다. 이는 권위 있는 인물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론이다. 다섯째, ‘생활공간(國土)확보’ 이론[10]으로 “히틀러가 이상으로 삼은 것은 인종적으로 순수한 민족이 살고 있는 동시에, 생활권이 마음껏 확대된 유구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정재인, 1995: 28).”

2) 제3제국의 정책

(1) 경제 : DAF와 KdF의 창설

나치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전선(DAF)[11]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

8) 즉 “다른 민족보다 優秀함을 立證시키고 그와 같은 자존심을 恢復하기 위해 독일의 초대형건축(Superarchitecture)을 건설하게 되었다(李恩鎬, 1991: 64).”고 볼 수 있다. 히틀러는 문화정책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려 하였다. 이것은 첫째, 예술과 건축 등을 통해 ‘독일의 위대함’ 그리고 ‘영원한 수도(천년제국 제3제국)로써의 베를린’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공공건물을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었다. 둘째, 당시 새롭게 등장한 문화, 특히 미술 분야를 정신병적 작품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응징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퇴폐미술전시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는 전체주의국가(제3제국)를 건설에는 개인주의 혹은 사상적 자유는 나치 공동체 이념에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9)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라는 슬로건이 바로 이것이다. 이로써 총통 1인의 책임체제가 성립되며 히틀러의 결정은 곧 국가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는 히틀러 자신의 독재시대를 의미한다. 이 내용은 그의 저서에 기술되어 있다. 히틀러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만 책임 있는 인물만이 있어야 한다. … 결정은 한 인간만이 내리는 것이다. … 즉 모든 지도자의 권위는 아래로, 그리고 책임은 위로라는 것이다(Adlof Hittler, 1943).” 그리고 “가장 우수한 민족, 인종이 세계를 지배해야만 한다는 히틀러의 인종론적 세계관은 … 민족의 내부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민족을 지도해야 한다는 ‘귀족주의적 정치원리’를 이끌어 내었다(정재인, 1995: 23).”

10) ‘생활공간확보’이론은 삶의 터전인 민족국가의 땅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해야 한다는 ‘잠재적 전쟁’이 숨겨져 있다.

11) “1933년 5월 2일, 계급철폐를 통한 민족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

시급한 공황극복과 경제건설은 노동자들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므로 DAF는 그 역할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DAF창립 후 나치는 노조를 해산시키고 "1934년 6월 22일과 25일에 '나찌세포조직(NSBO: Nationalsozialistischer Betriebszellenorganisation)은 어떤 형태의 모임도 가질 수 없다'는 법령을 내리고, NSBO의 재정과 함께 그 조직을 DAF 아래로 흡수하였다(D. Geerin, 1973: 193)." 나치는 노동자의 여가활동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 "DAF는 그 산하 기구로서 노동자의 여가를 집단적으로 통제할 「즐거움을 통한 노동(KdF: Kraft durch Freude)」이라는 기구를 만들었고, 1934년 1월 20일에는 국민노동법(AOG)을 제정하였다(나혜심, 1991: 132)."[12] 이것은 신체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노동자의 지위상승과 함께 여가문화에 대한 국민적 평등을 야기하였다. 이는 이전 독일의 경제 질서를 변화시킨 것이다.

(2) 정치 : 전체주의

나치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사회주의노동당이다. 따라서 요하임 페스트(F. C. Joachim/안인희, 1998)는 "나치의 사고방식에서 모든 개인주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었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때는 끝이 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3제국은 "재산을 사회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회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유정희, 2000: 133-134)."이라고 볼 수 있다.

우고 그 실현기구로서 노동전선(DAF: Deutsche Arbeitsfront)을 창설하였다. DAF는 나찌스당, 즉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의 직속 하에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그리고 공장의 작업 환경 등의 문제에 관여했다(나혜심, 1991: 121-122)."

12) 이 글의 원출처는 'Arbeitswissenschaftlichen Institut der Deutschen Arbeitsfront. 1943. Die Deutschen Arbeitsfront. Verlag der DAF. p. 9'이다.

제3제국의 정책은 히틀러의 지시 아래 一絲不亂하게 진행되어 갔다. 여기에는 대중조작과 강압정치가 뒤따랐다. 개인보다 국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 곧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13] 따라서 나치시대는 개인적인 의지나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3) 군사 : 군부정권

히틀러와 나치는 군부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았다. 처음에는 自由軍團(준군사집단)[14]과 같은 민간군사조직을 이용하였고, 집권 후에는 군 개편[15]을 감행하여 군부와 一體[16]가 되었다. "나치운동의 주력은 국가사회당(NSCAP)이었고 국가사회당의 조직기반은 전선경험을 가진 自由軍團(Freikorps) 출신의 小壯退役將校들이었다. 이들은 국가사회당의 核心幹部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당의 모든 활

13) "강한 통제를 하였던 선전기구 밑에는 비밀경찰과 집단수용소를 핵심으로 하는 테러 조직이 있었다. … 친위대(SS)는 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휘두르며 잔학행위를 저질렀다(유정준, 2005: 15)."

14) "自由軍團은 전후 독일의 각 전선에서 돌아온 장병들 중의 상당수가 해산하지 아니하고 1918년 12월 경부터 政府나 대기업으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전역에 산재한 전투부대를 말한다. 자유군단의 규모나 종류도 다양하였으며 부대의 수도 많을 때는 65개나 되었다. 그들은 國粹主義的(nationalistic)이었으며, 急進主義的 保守主義 性向을 띠고 있었다. 독일에서 그들의 적은 마르크스主義者와 바이마르共和主義體制를 지지하는 共和主義者들이었다(Reber G. L. Watite, 1969: 23-24)" 그러므로 히틀러는 이들 軍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15) 이 군 개편은 상당히 혁신적이었는데, "1938년 11월 4일에 발표된 '국방군의 대개편'이었다. 그 결과 16명에 달하는 고참 장군들이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고 44명의 장군이 전임케 되었다. … 그리고 현역 장군만이 차지할 수 있었던 군방상의 지위에는 히틀러 자신이 겸임하였다(정재인, 1995: 58)." 즉 히틀러는 군의 숙청작업을 통하여 지휘권의 획일화와 군부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16) 1943년 12월 22일 총통의 명령, '국가사회주의 지도장교(NSFO)' 제도가 도입된 후 나치와 군은 하나가 되어 강력한 군사정권을 탄생시켰다.

동을 주도하였다(Richard Bessel. 1984).”

4. 제3제국의 체육교육

제3제국의 체육(교육)은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써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나치정부의 체육목적은 스포츠를 통하여 역경을 이겨내고 투쟁하는 진정한 남성, 신체적으로 강건한 제국의 전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1) 학교의 체육교육

(1) 학교의 일반적인 교육이념과 정책

제3제국의 학교역할은 나치이념의 주입장소였다. 그리고 전체주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나치의 교육목표는 당(3제국)에 대한 복종과 헌신이었다. 히틀러는 나치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해 “모든 교실에는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으며 그리고 나치의 슬로건, 즉 ‘지도자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한다.’는 표어와 … 그리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의 인사는 차렷해 서서 ‘히틀러 만세(Heil Hitler)’라고 소리는 것이었다(정재인, 1995: 36).” 이러한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닌 국가의 소유물로 전락했다(정재인, 1995: 37).” 나치시대의 학교는 3제국(나치이념)의 중재자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나치는 학교제도를 가장 잘 이용하였다.

‘학교’는 유아에서부터 성인(군대)까지 ‘교육의 고리(제도)’가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었다.[17] 3제국은 학교제도를 통하여 나치的 인

17) “10살 된 청소년들이 나치당의 각종 단체에 가입하고, 그로부터 4년 후에

간을 양성한 것이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2) 학교체육

제3제국의 학교정책은 '총통의 강령'으로써 실시되었는데, 모든 국민을 나치的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실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귀족주의가 배척되고 계급사회가 무너져 버렸다. 귀족주의나 계급사회는 3제국 건설의 방해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나치의 학교체육은 전체주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실행하였다.

> "나치는 … 아동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국가중심의 학교를 원했던 것이다. '체육활동에 대해서도 체육, 스포츠는 개인의 사적인 향락이 아니다. 신체운동은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한 부분이며 국가교육의 기본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스포츠활동은 개인주의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며, 국가주의적 관심으로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주동진, 2003: 165)."

한편, 임식・주동진(2010: 190)은 "히틀러는 학교제도를 이용한 통합화에 의해 사회계층의 분열을 막았고, 중학교 과정을 학비가

는 그들이 히틀러 유켄트의 단원이 된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그들 모두는 노동전선으로 '돌격대', '친위대' 또는 각 단체의 노동조합의 일원이 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2년 또는 1년 반을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국가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모두는 다시 6-7월 동안 노동봉사를 통해 그들은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단련된 젊은이들은 2년 또는 3-4년 동안 국방의 임무를 맡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국방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들은 다시 '돌격대', 또는 '친위대' 그리고 기타 단체에 소속되어 국가사회주의를 위한 각종 봉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제 전국민은 교육의 고리에 의한 톱니바퀴식의 통제 속에서 나치체제에 동조하도록 강요되는 것이다(정재인, 1995: 62-63)."

무료인 기간학교로 대체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교육의 합리성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근대적이며 진보적인 교육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히틀러는 체육은 곧 국력이라는 군국주의 체육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하여 독일 국적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신체활동의 평등한 체육교육이 전개되었다. 이 전시대의 신분에 따른 체육활동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전윤수 · 주동진, 2007: 33)."고 하였다. 이는 체육교육에서도 '민족우월주의와 전체주의'의 사상을 강조하고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회균등의 평등교육과 통합과정의 학교정책은 합리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교육정책으로 판단된다.

히틀러는 3제국의 교육목표를 단순한 지식주입이 아닌 철저하게 '건강한 신체육성'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신체단련을 국가정책에 있어서 우선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신체단련을 매일 꾸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18] "제3제국에서 이와 같은 강령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스포츠는 교육에서 다른 학과목과 비교하여 우위에 점하게 된다(김종영, 1994: 186)."

제3제국에 있어서 "교육의 임무는 건강한 신체의 육성, 의지력과 결단력의 함양, 책임감 등을 기르는 것이었고, … 나치 교육 체제에서는 신체가 제일이요 그 다음에는 정신이요 마지막이 지성이었다(정재인, 1995: 38-39)."

제3제국의 학교체육은 신체단련 위주로 강제 및 의무사항으로 진행되었고 또 교육과정에서 신체교육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한 학생 나아가 국민들의 강건한 신

18) "인간의 이상형을 육체적인 강건함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젊은이가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각각 한 시간 동안 그것도 갖가지 종류의 스포츠와 체조를 하면서 육체적 단련을 받지 아니하는 날이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A. Hitler, 1925, 452-455; 임식 · 주동진, 2010: 189)."

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체육교육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전 시대(귀족주의 계급사회)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각에 보았을 때 근대적 체육교육으로써 교육의 합리성과 평등성을 갖추고 있다.[19] 이는 당시 강력한 나치(군사정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한 제3제국의 강압적인 체육정책은 국가주의 체육교육의 典型이 되고 있다.

2) 사회의 체육교육

제3제국의 체육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며 존재하였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신체우위의 교육은 학교체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체육제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역시 무상교육형태를 띠고 있지만 강압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학교제도의 연장으로써의 사회체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가장 강력히 실시되었던 히틀러-유겐트(Hitler-Jugend)가 가장 돋보이고 다음으로 농촌(田園)에서 단체생활(교육)인 Landjahr 그리고 일반 노동자를 위한 KdF 등이 있다.

(1) 히틀러 유겐트의 군사체육교육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는 “제3제국의 청소년 하부조직(권형진, 2007: 260)”으로써 돌격대(SA)와 더불어 나치당의 집권에 관련

19) “히틀러의 학교교육의 무상교육과 통합적인 행정제도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발달을 위한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의 사상 등은 나치독일과 함께 한 히틀러의 체육정책으로써 상당한 무게를 지닌 것들이다. 즉 히틀러의 사상이 독선적이고 많은 오류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역사적 교훈과 학술적 의미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임식 · 주동진, 2010: 193).”

하여 큰 공헌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쉬라크(Schirah)는 “나치당은 청소년의 당이다. 당의 청소년은 그 정예이다.”라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20] 이 조직은 학교 정규과정 밖의 청소년제도이지만 실제는 학교정규교육과 같은 형태로써 존재하였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예비군양성을 위한 군사교육이 대부분이었다.

히틀러 유겐트의 역할은 상당하였다. “1934년 ‘독일노동전선(Deutsche Arbertsfront)’이 담당했던 청소년노동자들의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히틀러 유겐트가 담당(권형진, 2007: 277)”하였고 “여행, 스포츠와 같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국가의 시민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부문을 히틀러 유겐트가 전담(권형진, 2007: 275)” 하였다.

또한 히틀러-유겐트는 전쟁준비교육으로 그 역할이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주로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년단과 소녀단은 그 성격(교육내용)이 서로 달랐다.[21] 그리고 히틀러 유겐트는 군인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인류사에서 가장 제도화된 청소년군사교육[22] 혹은 청소년군사체육교육[23]이라고 할 수 있다.

---

20) 이 내용의 원출처는 Baldur von Schirah Die Hitler-Jugend, p. 180이며 권형진(2007: 272)의 것을 재인용 하였다.

21) “소년들은 유소년(10세-14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유소년단(Deutsches Jungvolk: DJ)’와 청소년(14세-18세) 조직인 ‘히틀러소년단(Hitler-Jugend: HJ)’에 가입하였고 소녀들은 10세에서 14세까지는 ‘유소녀단(Jungmädel: JM)’에, 14세에서 21세까지의 소녀들은 ‘독일소녀동맹(Bund Deutscher Mädel: BDM)’에 가입했다. 특히 거의 성인이 다된 17세에서 21세까지의 소녀들은 ‘믿음과 아름다움(Glaube und Schönheit)’이라는 별도의 조직에 함께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다(권형진, 2007: 260).” 그리고 “히틀러 유겐트의 교과과정은 나찌이념 교육과 신체단련 훈련(군사훈련)이 149시가 중 104시간을 차지했다. … 히틀러 유겐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운동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 지형교육, 사격 연습, 모터싸이클 연습, 항공 글라이더 교육, 승마, 통신교육 등이었다. … 이렇게 훈련받은 히틀러 유겐트 대원들을 나찌 지도부는 전쟁 말기에 제3의 민족돌격대로서 이들을 징집했다. 징집된 15-16세까지의 소년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소총, 기관총, 대전차 로켓트 포를 조종했다(정재인, 1995: 51).”

3제국은 민족의 생활공간(Lebensraum), 즉 영토를 확보(침략전쟁)하기 위하여 많은 군인이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민족전사로 양성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수업으로 부족한 군사교육을 사회체육형태로 보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 유겐트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히틀러 유겐트 단원은 매달 한 번씩 소풍 형식의 행군을 해야 했다. 특히 소년의 경우는 유소년단 시절부터 이미 야외훈련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 1934년부터 히틀러 유겐트의 전체 활동에서 3분의 1은 민족사회주의 세계관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육체적 활동과 스포츠에 할애하도록 지시되었다(권형진, 2007: 279-297)."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은 강인한 신체완성을 위한 많은 체육교육과 함께 원활한 전쟁수행을 위해 무기조작과 야외전투 경험을 미리 학습하고 있었다. 결국 히틀러 유겐트를 통하여 더욱 강렬한 미래의 민족전사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투교육을 미리 학습한 히틀러 유겐트'[24]는 미리 예견된 전쟁

---

22) 권형진(2007: 282)은 "이미 전쟁 전인 1938년 백2십만 명의 히틀러 소년단원들이 사격훈련을 받았으며(Brenda Ralph Lewis, Die Geschichte der Hitlerjugend. 1922-1945. p. 102)",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격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3) 권형진(2007: 281)은 "히틀러 소년단에서 강조된 체육활동도 신기록을 세우는 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준비된 전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Herbert Obscherningkat, 'Jugend und Sport', Wilhelm Fanderl H.J. mascbiertl. pp. 209-214)."고 밝히고 있다.

24) "1938년 '히틀러 해양소년단'은 5만 명, '히틀러 기동소년단'은 9만 명, '히틀러 소년비행단'은 7만 4천 명, 유소년단에서 모형비행기 공동제작반은 7만 3천명 '히틀러 소년통신단'에서 2만 9천 명이 활동하고 있었다(Brenda Ralph Lewis, Die Geschichte der Hitlerjugend 1922-1945. p. 41). 이것은 미래의 전쟁을 위해 약 32만 명의 예비 병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권형진, 2007: 283)." 그리고 "1943년 1월부터 대부분의 대공포 진지에 히틀러 소년단원이 배치되었고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담당한 것도 히틀러 소년단원이었다. … 6월에 히틀러 유겐트로 구성된 제12전차 사단 '히틀러 유겐트'가 창설되었다(권형진, 2007: 285)."

(3제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거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몰락하는 3제국을 히틀러 유겐트(청소년군대)가 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은 전쟁의 희생물로 사라졌고 이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도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사는 히틀러나 나치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나치정부(제3제국)의 강제성이 있었지만 스스로 이를 지지한 협조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를 보고도 '묵인'한 독일 국민들의 '침묵의 죄'도 간과할 수 없다. 히틀러 유켄트의 교육내용은 강력한 신체양성(체육교육)과 군사교육이 주요한 교과과정이므로 처음부터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 독일 국민들의 책임은 결코 역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2) 기타 사회체육 교육

① Landjahr

우리말로 전원학교 혹은 전원기숙사학교[25]라고 표현할 수 있는 "Landjahr의 설립목적은 공장지역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농촌의 생활과 음식으로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Deobold B. Van Dalen & Bruce L. Bennett, 1971: 232)." 이 제도는 농촌(전원)생활을 통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는데 있지만,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지니고 있다.[26] 결과론적 입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

25) "1906년에 설립되어 1932년에 나치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문은 닫음(정기섭, 2005: 98)."

26)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가 좋은 농촌생활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며 둘째, 도시가 아니라 자연(전원)생활에 있을 응급사태에 대한 대처 방법을 터득하고 셋째, 식량문제에 대한 대응조치(숙식능력) 넷째, 합숙소 생활(아침조례 등)을 통한 사회성(동료애・전우애・민족애)을 함양

사회성 형성', '야외활동 학습', '응급처지', '비상 숙식해결' 등은 사회체육교육의 학습효과와 상통한 점이 있고 군사교육의 가치와도 같은 맥락이 보인다.

② KdF

'즐거움을 통한 힘(KdF: Kraft durch Freude)'은 독일노동전선(DAF; Deutsche Arbeitsfront) 산하의 기관으로써 1933년 11월 27일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KdF의 설립의도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들에게 여행을 권유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며, 각종 연극상연이나 강연행사를 개최하는 것 등이었다. … 여행사업 이외에 나찌스는 스포츠도 활성화시켜 스포츠국의 관리 하에 체육교실, 수영 미용체조 교실 등을 열었으며 1934년 말에 이미 48개 지역에 스포츠 관리분국을 설치하였다. … KdF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작업환경 개선(SdA: Schön der Arbeit: 노동의 아름다움) 작업을 들 수 있다. … KdF는 1940년까지 26,000개 작업장의 시설을 개선했으며, 24,000개의 샤워장과 탈의실을 설치했고, 1,800개의 휴게실과 17,000개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3,000여 개의 공장 안에 스포츠시설을 설치했다(나혜심, 1991: 138-139)."

KdF는 여가와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즐겁게 살면서 또 휴식으로 축적된 에너지를 통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여행, 승마, 테니스, 요트 등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로는 상당한 특혜와 같았다. 이는 귀족들만 즐겼던

하고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으며, 다섯째,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채우는 효과 여섯째, 이 제도에는 체조, 권투, 수영, 야외활동, 행진, 노래, 캠프파이어, 야간활동, 군사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즐거운 체육시간도 있지만 예비 군사훈련의 효과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이 제도는 치밀히 계획된 나치의 사회교육제도로써 나치的 인간양성을 위한 교육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이며 노동자는 꿈도 꾸기 어려운 종목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과 계층에 대한 혼란이 생성되었다. 오늘날의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수행하기 힘든 사회체육사업인 것이다. 나치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체육정책으로 이를 실시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③ 1936년 베를린올림픽

독일 제3제국의 체육정책을 논할 때 베를린올림픽은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기대회는 특별한 의미, 즉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무너진 민족자존심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침체된 국가경제 등의 난황 속에서 집권한 나치는 그동안 굴욕적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올림픽에서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와 함께 '비전(vision)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올림픽은 나치 독일의 승리였다(유정준, 2005: 16)."고 볼 수 있다. 그 왜냐하면 나치는 올림픽에서 종합우승을 하였고 또한 수많은 세계기록이 탄생되었다. 더하여 聖火奉送, 月桂冠授與 등 새로운 올림픽 문화유산(의식)을 창안하고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림픽 역사적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 나라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한 예는 올림픽역사에서도 유래가 없었다. 올림픽경기에 대한 나치 제3제국의 전면적인 개입(준비)과 또 국가(민족)과시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 경기대회를 가장 국가주의 올림픽대회 혹은 스포츠내셔널리즘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당시 나치집권의 올림픽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새로운 독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활기차고 희망에 찬 도시 베를린과 평화를 사랑하고 밝은 독일의 모습을 가진 국가로 각인시켰다. 즉 올림픽을 통한 나치의 계략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후 독일은 전쟁준비를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진행하였다.

3) 군대의 체육교육

제3제국의 체육교육 분야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軍제도이다. 히틀러에게 있어서 군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과정이며 또한 최종단계였다. 왜냐하면 나치(제3제국)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군인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의 첫 번째 자격조건은 강건한 신체의 완성이었다. 그러므로 체육교육은 군인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교과과정이었다.

히틀러는 1935년 9월에 독일 국민의 전 생애를 포괄해야 할 '교육의 고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제야 군부에 대한 지배를 관철함으로써 겨우 그것이 실현된 것이다. '유아는 유년단에, 소년은 히틀러 유겐트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돌격대, 친위대 및 그 외의 단체에 들어간다. 이 국민병사는 운동의 조직, 즉 당과 돌격대, 친위대로 다시 돌아온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결코 예전과 같은 타락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그는 군대를 최후, 최고의 학교로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학교에서 소년은 어른으로 변해야 하며 복종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장차 명령하기 위한 바탕까지도 획득해야 한다.'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종이라는 관념 밑에 행해지는 이 교육도 그 최후의 마무리는 군대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역시대가 일반 독일인의 보통교육의 종결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군대교육을 강조했다(정재인, 1995: 59)."

권력을 장악한 후 히틀러는 나치的 민족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체육교육을 강조하고 또한 체육시간도 가장 많이 할애하였다.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사회체육 그리고 군에서도 체육은 가장 우위의 교과였다. 또한 이 체육교과과정은 군사활동에 필요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필수교육 및 더욱 많은 시간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제3제국의 체육교육과정은 이미 전쟁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여성의 체육교육

제3제국의 교육은 남성과 여성을 철저히 구별하였다. 남자는 3제국이라는 '삶의 터전(영토) 확보의 역할'을 맡을 전사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강인한 군인교육이 필요했다. 반면 여성은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하여 남자와 다른 교육을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나치는 태어나면서 남녀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본 것이다.[27] 나치의 여성교육체계는 다음과 같다.

> "독일의 소녀들은 누구나 10세에서 14세까지 독일소녀단(Jungmädel)에 가입되었다. 그들은 동년배의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 길거리 행군을 하며 나치스 이념교육을 받았다. 특히, 나치이념 교육은 건강한 어머니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나치 이념 교육은 14세가 되어 독일 소녀연맹(Bund Deutscher Mädel) 회원이 되면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BDM의 소녀들은 농촌에서 1년간 봉사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교육의 제한은 여성의 교육의 강의 핵심을 뜨개질, 요리, 그리고 간호학 등으로 제한시켰다(정재인, 1995: 53)."

나치는 남성에 비해 제한적 혹은 차별적인 여성교육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육에 있어서는 남성과 다를 바 없었다. 왜냐하면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소녀들에게 체육을 강조하였으며, "보다 많은 수의 소녀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운동과 하이킹, 캠핑, 탐험 등의 프로그램을

---

27) 나치는 "남자의 성격은 용기, 기사도 정신, 정의감이며, 남자의 생각은 자립적, 객관적, 선경지명이 있어서 미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전체적 특징은 남자와 정 반대이다. … 여성들은 교육에서 소외되었다. 그 결과 여자교육은 4K, 즉 어린이(Kinder), 부엌(Küche), 의복(Kleider), 교회(Kirche)의 영역으로 제한되었다(정재인, 1995: 52)." 즉 여성교육의 최고목적은 장래의 훌륭한 어머니였다.

제공하였다(유정희, 2000: 147).” 이러한 나치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체육교육에서 가장 중점 과제였다. 이는 독일인종의 순결과 보존을 위한 방편이자, 제3제국의 국력(태어난 아이는 나치 전사가 되기 때문)이었다. 또 이러한 출산정책은 어떠한 전쟁의 승리보다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28]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병자)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5. 결론

제3제국(Das Dritte Reich)은 인종주의적 국가관을 정책이념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바탕에서 학교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 교육의 큰 테두리는 전체주의적 ‘공동체 교육’이며, 이것은 제3제국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책임’이자 제국의 ‘평등한 권리로써의 의무교육’이었다. 제3제국의 체육정책은 신체활동을 통한 이상적인 인간, 즉 제국의 수호자(군인)양성을 목표로 두었다. 따라서 나치의 학교교육은 주로 신체단련을 중시한 체육교육이 실시되었다. 즉 스포츠를 통하여 역경을 이겨내고 투쟁하는 진정한 남성(투사), 이상적인 신체의 소유자(군인)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제3제국의 학교교육

28) 제3제국은 군사정책 못지않게 산아정책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것은 피의 순결(독일민족의 보호)의 차원도 있지만 실은 제3제국의 군인생산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3제국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다. 그리하여 “어머니날은 히틀러 어머니의 생일날(8월 12일)로 변경되어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어머니 메달이 등장하여 다섯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동메달이 여서 자녀의 경우 은메달이 일곱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금메달이 수여되었다(Bock Gisela, 1994: 165; 유정희, 2000: 142).” 산아정책은 새로운 제국에 새로운 인물(깨끗한 인간 곧 아기)을 통한(나치적인 인간교육) 새로운 국민(군인)양성인 것이다. 그리고 제3제국을 건설(전쟁)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전사)이 필요했다.

은 신체형성을 중시한 체육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와 관련한 연장교육제도로써 노동을 강조하고 신체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독일 노동전선(DAF: Deutsche Arbeitsfront)과 농촌단체생활교육(Landjahr) 그리고 군사체육조직(Wehrsportorganisation) 등이 있다.

제3제국의 교육과정은 유아는 유년단, 소년은 히틀러-유겐트(HJ) 다음으로 돌격대(SA), 친위대(SS) 등의 단체에 들어간다. 이는 충성스런 나치당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대학은 제3제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원제한을 시행하였다. 교육과정의 최종단계는 군대(군인양성)였으므로 학교체육은 군사교육의 준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 올림픽대회를 개최한 것은 독일민족국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부심'과 '국민들의 단결'을 종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였다.

나치(제3제국)의 여성교육은 인종 위생학을 바탕으로 4K라는 여성교육, 즉 어린이(Kinder), 부엌(Küche), 의복(Kleider), 교회(Kirche)의 영역으로 제한을 하였고,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임신과 출산에 두었다. 이러한 여자교육에 있어서 10세에서 14세까지 독일소녀단(Jungmädel), 14세부터 독일 소녀연맹(Bund Deutscher Mädel)에 가입하고 18세가 되면 농촌에서 1년간 봉사하도록 하였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3제국의 교육목표는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 즉 지도자와 국가에 절대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즉 전 국민을 12년 동안 나치 체제 안에 묶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단계별 교육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3제국의 교육은 신체우선, 정신이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탐구에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최종 교육과정을 군대에 두었고 군역의 의무를 마쳐야 진정한 독일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평등한 국민의식'과 '국가 방위' 그리고 '국가발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인식

시켰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과 신체훈련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따라서 제3제국은 국가운영과 교육정책에 있어서 체육분야를 가장 잘 활용하였고, 가장 많은 시간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체육교육을 강력하게 운영하여 강압적인 국가주의 체육정책의 典型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형진,「나치정권의 소년들에 대한 통제」, 대구사학회『대구사학』89, 2007, pp.260-297

金俸辰,「1918-1945년간의 독일 준군사 조직의 활동과 성격」,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金鐘榮,「나치언어에 나타난 요구적 성격의 분석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나혜심,「독일 제3제국의 노동정책에 관한 일고찰: 1933~1938년까지의 독일노동전선을 중심으로」,『成大史林』7, 1991, pp.121-139.

朴立秏,「히틀러 反유태主義의 政治心理學的 分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朴在穆,「國家 社會主義의 知的起源에 關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梁千秀,「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의 역사적·법적 문제와 그 의미: 법사학적·법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발행『軍史』60, 2006, p.168,

유정준,「칼 오르프의 음악작품 슐베르크」,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유정희,「나치 독일의 가족과 인구정책」, 한국서양사학회,『西洋史論』65, 2000, pp.133-147.

李恩鎬,「나찌독일의 건축과 Albert Speer의 건축 이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이진일,「비스마르크로부터 히틀러로? : 20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 숭배」, 수선사학회,『史林』23, 2005, p.268.
임 식・주동진,「히틀러의 체육사상 :「나의투쟁」을 중심으로」,『한국체육철학회지』18(2), 2010, pp.184-193
전윤수・주동진,「A. Hitler의 체육정책 - ultranationalism, militarism, imperialism」,『한국체육과학회지』16(4), 2007, pp.26-33.
정기섭,「비네켄(G.v. Wyneken)의 '자유 학교공동체 비커스도르프'에 관한 연구」,『教育問題研究』23, 2005, p.98.
정재인,「나찌시대(1933-1945)의 교육 : 나찌의 이론과 그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주동진,「人物史的 脈絡에서 본 韓國과 獨逸의 國家主義 體育思想 및 政策의 形成」,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Arbeitswissenschaftlichen Institut der Deutschen Arbeitsfront. Die Deutschen Arbeitsfront. Verlag der DAF. 1943. p.9
Baldur von Schirah Die Hitler-Jugend, p.180
Bessel, Richard.『Political Violence and The Rise of Nazism』. New Haver &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84.
Brenda Ralph Lewis, Die Geschichte der Hitlerjugend. 1922-1945. pp.41-102.
Carr, William. Hittler. London.
Fest, Joachim C./ 안인희 역(1998).『히틀러 평전』. 서울: 푸른숲. 1978.
Geerin, D.. Fascism and Big Business』. New York. 1973.
Gilbert, G. M..『Nuremberg Diary』. New York. 1961.
Gisela Bock. Nazi Gender Politics and Women's History.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94.
Herbert Obscherningkat. 'Jugend und Sport', Wilhelm Fanderl. H.J. mascbiertl. pp.209-214
Hittler. Adlof(1925). Mein Kampf. Germany: Hardcover & Paperback.
Hittler. Adlof(1943). Mein Kampf(Ralph Manheim). Boston. p.389
Jaeckel, Eberhard(1981). Hitler's World View. Cambridge, Mass, p.19
Joachim, Remak(1969).『The Nazi Years』. Englewood Cliffs, N. H., p. 39.

Johannes, Haller(1940).『Die Epochen der Geschichete』. Stuttgart Cotta. p.403.

Schramm, Percy Ernst.『Introduction' in Henry Picker』Hitlers Tischgesprache im Fuhrerhauptquarier. 1941-1942. 1965. pp.51-52

Van Dalen Deobold B. & Bennett Bruce L..『A World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2nd ed)』. Englewood: Prentice-Hall. 1971.

Watite, Reber G. L.. Vangard of Nazism: The Free Corps Movement in Post War Germany 1918-1923. New York: Norton. 1969.

The Political Ideal and Physical Education of the Third Reich
- *Physical Education policies of the Nazi Reich*

Joo, Dong-Jin

The Third Reich appeared with Nazism, which followed Hitler's beliefs and thoughts. Therefore, the thoughts of Hitler were just Nazism, or Hitlerism. Hitlerism was a racism, for which nationalism was needed. He thought that a nation should exist for the way of realization of a Darwinism for its people. He asserted war to acquire the place for the lives of the German people. And in order to settle down the ideal of the Third Reich, he had the German people arm with that ideal. He emphasized three kinds of policies or educations: the military education to protect and enlarge the territory of the Third Reich, the physical education to enhance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the labor policy to fulfill the labor shortage. The practice of those ideals was carried out related with the Physical Education of school curriculum, which aimed at education of totalitarian community. People of the Third Reich should be taught that education, which also a compulsory education as one of the equal rights of the people of the Third Reich. Owing to the linkage, that is, education, the education of the Nazi ideals was able to be continued. In the course of this, the national operation and educational policies of the Third Reich well made use of the spheres of physical education such as body-shaping, for which a lot of time spent and strong operation was followed. Therefore, the Third Reich became a typical nation of sports nationalism.

Key words: the Third Reich, the Nazi Reich,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Policy, Hitlerism

주동진
소속: 동국대학교 대학원 /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효성백년가약 아파트 104동 1006호
전화번호: 010-3181-8848
전자우편: sport@ynu.ac.kr

이 논문은 2012년 3월 2일 투고하여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30일 간행함